

2015 프랑스 한국어 교원연수

일시 : 2015.06.27(토)-28(일)

장소 : 파리 장송 드 사이 중고교

Lycée-collège Janson de Sailly

106, rue de la Pompe 75016 Paris France

주최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주관 :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



목차

2015 프랑스 한국어 교원연수 프로그램	3
Allocution de bienvenue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 회장	4
환영사 교육원장	7
미술로 엮보는 한국문화와 정서	8
수업내용 및 진행과정	9
종이접기	15
접기의 기본기호와 약속	16
종이접기의 기본형	17
종이접기의 훌륭한 점에 대하여	19
단계별 종이접기 활동	20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지적 접근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	23
1. 머리말	23
2. 이론적 배경	23
3. 인지 강화를 위한 어휘와 문법의 제시 방법	25
4. 전략중심 지도법 (Stragegies-based instruction: SBI)	27
5. 인지적 접근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 – Play Korean!	33
6. 결론	43
참고문헌	44

2015 프랑스 한국어 교원연수 프로그램

2015 년 6 월 27 일(토)

- 14:00-14:10 한불언어문화교육자 협회 회장님 인사말
- 14:10-14:20 교육원장 환영사
- 14:20-16:15 협의회
- 16:15-16:30 휴식
- 16:30-17:15 쉽게 따라하는 KPOP 수업 지도 방법 (이주연 안무가 현 케이팝 강사)
- 17:15-17:30 휴식
- 17:30-18:15 다양한 한국아틀리에 소개 및 민화 (주명선 Paris 8 대학 예술학분야 박사과정)
- 18:15-19:00 종이 접기 수업 (황진자, 한국종이접기협회 사범 3 급)
- 19:00-21:00 저녁식사 및 담화

2015 년 6 월 28 일(일)

- 09:00-09:50 협의회
- 10:00-12:00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및 교실수업 방안(김보경 파리 7 대학 강사)
- 12:00-14 :00 점심 및 해산

Allocution de bienvenue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 회장

Chers Amis et membres de l'AFELACC,

En tant que président de l'AFELACC, je vous remercie d'être venus nombreux à la 7^e Assemblée Générale de notre association AFELACC, qui sera suivie d'un stage.

Grâce à vos efforts, les ateliers de culture coréenne et l'enseignement du coréen sont implantés solidement dans 20 établissements secondaires, auprès de 2650 élèves, répartis sur 7 régions : Paris-Versailles-Créteil, Bordeaux, Rouen, Nantes-Chollet, Aix-Marseille, Strasbourg, Dijon et Le Havre. Ils se déroulent de façon satisfaisante. Nous nous réjouissons de cette situation et pouvons nous en être fiers.

Cela était possible par les sacrifices de vous tous, chers membres. C'est également le résultat de votre dévouement destiné à transmettre la culture coréenne à la jeunesse française avec passion, à élargir leur horizon, à promouvoir la coopération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secondaire, et à enrichir la culture française dans sa diversité.

Nous n'oublions pas que nos ateliers fonctionnent grâce au soutien moral et financier du ministère coréen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u ministère français de l'Éducation Nationale, auxquels nous exprimons nos sincères remerciements.

En plus de ces ateliers de culture, l'enseignement de la langue coréenne a été adopté par les lycées Victor Duruy à Paris, François Magendie à Bordeaux et Camille Saint-Saëns à Rouen depuis 2011. Un atelier de langue coréenne fonctionne au lycée agricole De Serres à Dijon depuis la rentrée 2014.

En mars 2015, 55 élèves français (60 en mars 2014) qui avaient appris le coréen dans leur lycée, ont pu passer leur épreuve de coréen LV3 au baccalauréat, à côté des élèves d'origine coréenne – candidat libres.

Notre Association a organisé ou a participé à quelques événements importants au cours de l'année écoulée :

-12 décembre 2014, au Centre Culturel Coréen, la présentation du manuel, *Apprenons le coréen*, T. 2, en présence du président de l'Université Bordeaux 3, M. Jean-Paul Jourdan, et de Mme Bernadette Gigal-Cellard, directrice des PUB (Presses Universitaires de Bordeaux). A cette occasion, nous avons remis une plaque de remerciements à Mme Rigal.

-5, 6, 7 février 2015, participation à Expo Langues sur le stand loué par la Korea Foundation.

-28-29 mars et 13-14 juin 2015, réunion pour élaborer le programme de l'enseignement du coréen Palier 1 et le document d'accompagnement du palier 1

-L'ouverture d'un cours de coréen est prévue au collège Gustave Flaubert dès la rentrée 2015.

Dans le domaine des échanges et de la coopération, plusieurs projets ont été concrétisés ou en cours d'élaboration grâce aux efforts de Mme Bouriane Lee, attachée d'éducation à l'Ambassade de Corée :

-Jumelage entre le rectorat de Créteil et le rectorat de la province du Chungcheong du Nord,

-Projet d'échanges entre le lycée François Magendie et le lycée de Daejeon Oego.

-28 mars 2015, signature d'un accord de coopération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secondaire, à Séoul, entre le recteur de Paris, M. François Weil, et le recteur de Séoul, M. Cho Hui-yeon.

-Avril 2015, coopération entre le collège Gustave Flaubert et le collège des jeunes filles Deokseong.

J'avais l'occasion d'assister aux spectacles réalisés par les intervenants et les élèves, présentés par Mme Hurbin-Hong Sungmi, secrétaire générale de notre Association :

-26 septembre 2014 au lycée-collège Janson de Sailly,

-12 février 2015 au lycée Victor Duruy,

-16 avril 2015 au lycée Janson de Sailly,

-21 mai 2015 au lycée polyvalent Emilie du Chatelet, à Serris, Marne-La-Vallée, en présence de l'ambassadeur de Corée en France, M. Mo Chul-min.

J'ai été très ému du sérieux et de l'application des élèves qui présentaient leur talent acquis dans les ateliers.

Je sais bien que le bon déroulement de nos ateliers était possible par l'implication de tous les intervenants-animateurs, et des responsables régionaux. Nous devons également beaucoup aux précieux soutiens de Mme Bouriane Lee, attachée d'éducation à l'Ambassade de Corée, de Mme Hurbin-Hong Sungmi, secrétaire générale et de Mme Véronique Archeray, comptable de notre Association, et à l'aide des assistantes du bureau de l'attachée d'éducation à l'ambassade de Corée.

Je crois que le nombre des jeunes Français qui souhaitent connaître la Corée va s'accroître d'année en année. Face à cette perspective, j'aimerais vous demander de continuer à mobiliser encore davantage votre talent, votre compétence et vos connaissances pour mieux répondre à leur attente, bien que les conditions matérielles et financières soient insuffisantes et difficiles.

En profitant de notre Assemblée, nous avons prévu un stage sur la méthode d'enseignement du coréen à l'aide des équipements numériques (multimédia) par Mme Kim Bokyeong, maître de langues à l'Université Paris-Diderot.

Je vous souhaite que cette Assemblée générale soit un lieu d'échanges et de discussion pour faire un bilan collectif sur l'année passée, un lieu de partage de nos expériences, un lieu de réflexion sur ce qui doit être amélioré, et enfin un lieu de tisser et de renforcer la solidarité et les liens entre les membres.

Pour terminer, je vous souhaite de passer un séjour agréable et fructueux à Paris. Merci.

Le 27 juin 2015, LI Jine-Mieung, président de l'AFELACC.

환영사 교육원장

2015 프랑스 한국어 교원 연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 한국어 보급 활동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강사님들의 수고와 프랑스 교육계의 협력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수업 보급은 꾸준히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파리, 크레테이, 베르사유, 루앙, 르아브르, 스트라스부르, 디종, 액상프로방스, 보르도, 리옹, 라로셀, 낭트와 솔레 지역에 초중고교 혹은 대학에서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파리, 리옹,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액상프로방스, 툴루즈, 몽펠리에, 보르도, 디종, 클레르 몽페랑, 블루아, 솔레에 재외 국민을 위한 한글학교가 개설되어 있어,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며, 또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만날 수 있는 곳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15년 4월 서울 교육청과 파리 교육청이 상호교류 협정을 맺었고, 5월에는 대구 교육청과 루앙 교육청이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학교들간의 자매결연 체결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교육청들의 협정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매결연과 학생교류는 한국어 보급 활동의 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사님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작년 한해 프랑스 전국에 약 30개교, 2,4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소년기 세상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것은 미래에 한불교류의 주역을 만들어낼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활동은 이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프랑스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를 배웁시다!» 제1권, 제2권을 편찬해 낸 데 이어, 올해부터는 프랑스 중등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가 결성되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수업도 각 교과별로 강사님들간, 또한 프랑스 학교 교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협력적이며, 발전적인 수업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연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교육자들, 강의를 수락해 주신 강사님들, 한불언어문화교육자 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27일

교육원장 이부련

미술로 엿보는 한국문화와 정서

@수업목적 :

-한국문화를 미술활동에 접목하여 외국어린이들의 흥미를 도모하고 집중력과 감성을 자극하여 한국적인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 들일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술적인 창의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정서를 함께 교류하는 수업이다.

수업강사 : 주명선

수업내용 및 진행과정

(한국화 및 민화 알아보기)

1. 민화이야기 - 그림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수업준비 방법 및 효과 :

- 민화작품들을 작가별 시대별 이야기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만들고 옛날이야기 방식으로 그림안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한국의 삶과 문화를 간접경험해보며 한국의 정서를 학생들과 나눌수 있다.

- 수업한 내용의 민화 밑그림을 준비하여 먼저 나누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한국선조들의 삶을 상상해 보면 학생들 각자가 채색을 한다

(민화 이야기의 예)



- 활쏘기 연습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 작품입니다, 활은 전쟁이나 사냥의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의 선조들은 활쏘기를 인격수양을 위한 가르침으로 사용하였답니다.그림의 활을 배우는 학생은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님께 배우고 있네요.



-시냇가의 빨래터 풍경이네요. 한국의 선조들은 아낙네들이 시냇가에 모여 수다도 떨며 함께 빨래를 했답니다. 속닥속닥 아낙네들의 수다소리와 시냇가의 물소리가 귓가에 들리지 않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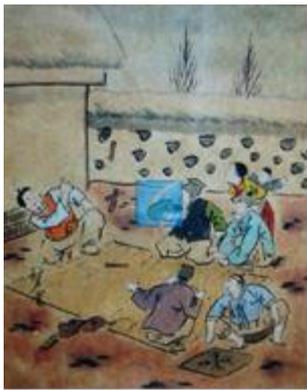


-장기를 두다 싸움이 나신 어르신들의 재미있는 모습이네요. 곰팡대 담배를 피우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부채도 보이네요. 백운 진선영 화백님의 풍속화에요,



-어느집의 잔칫날인가요?

방안에 베틀을 짜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마당에는 떡을 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떡을 이렇게 꿑떡꿑떡 쌀반죽에 큰 나무 망치로 여러사람이 찍어 내리며 반죽을 했답니다. 담벼락에 어린아이들이 뽀뽀 구경하고 있네요. 완성된 맛있는 한국의 떡을 떠올려 볼까요?



한국의 윷놀이 모습이네요.

윷놀이는 한국의 명절날 가족끼리 둘러 앉아 즐기거나 친구들이 모여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윷놀이 하는 사람들과 옆에 강아지도 참 즐거워 보이네요.

2. 민화그리기



수업재료 : 인쇄된 민화밀그림, 물감

수업방법 및 효과 : 밀그림에 그려진 민화의 작가 소개 및 민화이야기 들려주기 인쇄된 밀그림에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색칠하며 표현하면서 한국민화에 친숙함과 흥미를 갖게 해주고 다양한 자기만의 색상표현으로 창의력을 키워준다.

3. 한국화 표현 - 종이 뜯어 붙이기 표현



수업재료 : 인쇄된 한국화 밀그림, 색지 또는 색종이, 딱풀

수업방법 및 효과 : 한국적인 밀그림에 색지를 찢어 붙이며 표현한다.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며 한국적인 색감을 표현할수 있다.

4. 한국화 표현 - 원본 그림을 보고 자기만의 표현 하기



수업재료 : 인쇄된 한국화 밑그림, 물감

수업방법 및 효과 : 한국적인 원본그림을 함께 감상하며 나누고 인쇄된 밑그림 또는 보고 그리기로 밑그림을 그리고 자신만의 색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며 한국적인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

5. 한국화 표현 - 부채에 한국민화일부표현



수업재료 : 부채, 인쇄된 한국화 밑그림, 물감

수업방법 및 효과 : 한국에서의 다양한 부채를 선보이고 한국적인 원본그림에 색을 칠하고 부채를 완성한다.

6. 한국적인 카드 만들기 및 엽서 만들기



수업재료 : 인쇄된 한국화 밑그림, 물감 및 색지, 딱풀

수업방법 및 효과 : 한국적인 민화나 문양이 들어간 밑

그림이 있는 카드지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한국적인 문양의 카드를 표현하여 완성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각자의 소중한 사람에게 카드를 쓰고 신문하는 미션을 준다.

(한국문양학습)

7. 공판화로 문양찍기



수업재료 : OHP필름지에 문양 밑그림, 칼, 물감, 접시, 스펀지조각

수업방법 및 효과 : 한국적인 다양한 문양을 소개한다. OHP필름지에 문양 밑그림을 칼로 오려내고 스펀지에 다양한 칼라의 물감을 찍어 문양이 새겨진 OHP필름지에 통통 찍으며 문양이 종이에 새겨지게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한국문양을 표현하며 한국문양의 다채로움을 배워본다.

8. 한국 도장파기





수업재료 : 고무도장재료, 조각칼, 인주, 종이
수업방법 및 효과 : 이름첫자나 한국이름첫자를 고무도장에 조각칼로 새긴다. 또는 간단한 한국문양을 고무도장에 새긴다. 한국어나 문양을 직접새기며 한국문화를 친근하게 접해볼수 있다.

9. 비누조각



수업재료 : 비누조각, 조각칼
수업방법 및 효과 : 비누조각에 초가집이나 자화상 또는 물고기, 문양등을 밀그림으로 그려놓고 조각칼로 준비한 샘플을 보고 조각한다.

10. 탈만들기



수업재료 : 탈모형, 물감, 파렛트, 물통, 싸인펜, 매직
수업방법 및 효과 : 한국적인 탈의 종류들을 소개하고 탈모형에 다양한 색상을 입혀 보고 한국탈을 친숙하게 접해본다.

11. 한복표현



수업재료 : 한복 밀그림, 색칠도구
수업방법 및 효과 : 다양한 한복을 소개하고 한복자료들을 감상하며 학생들과 한복의 신분이나 용도 색상등을 학생들과 대화하며 설명해준다. 준비된 한복 밀그림에 다양한 칼라를 입혀보며 한복과 친숙함을 느낄수 있다.

13. 복주머니 만들기



수업재료 : 한복 밑그림, 색지 또는 색종이, 딱풀, 가위
 수업방법 및 효과 : 다양한 한복을 소개하고 한복자료들을 감상하며 학생들과 한복의 신분이나 용도 색상등을 학생들과 대화로 나눈다. 준비된 한복샘플을 보고 학생들이 색지를 오려붙여 표현함으로 한복과 친숙함을 느낄수 있다.

12. 한지공예



수업재료 : 한지공예 밑케이스, 한지, 풀, 가위
 수업방법 및 효과 : 한지공예를 위한 다양한 공예 밑케이스에 한지를 덧붙여 한국적인 생활용품을 만든다.

수업재료 : 화선지, 싸인펜
 수업방법 및 효과 : 화선지에 간단한 시의 주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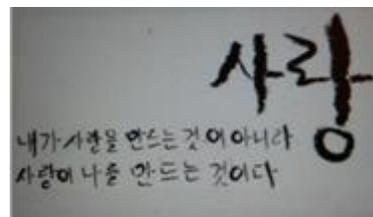


수업재료 : 복주머니 모형, 한지및 색지, 딱풀, 가위
 수업방법 및 효과 : 입체로 복주머니를 표현함으로 한국적 생활용품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수업재료 : 복주머니조각들, 다양한 한국문양조각, 한지, 딱풀, 가위
 수업방법 및 효과 : 복주머니 조각들을 조립하며 문양들을 오려 붙여 복주머니를 꾸며주며 한국적문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14. 한글표현



적어주고 간단한 시글을 따라쓰기 한다.
 한글을 직접써보며 짧은 시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운

정서를 느낄수 있다



수업재료 : 카드종이 및 여분의 종이, 색지, 색채도구,
가위 풀
수업방법 및 효과 : 여러겹의 카드종이에 가족들의 모습들을 표현하여 각 카드면에 오려 붙이고 아빠, 엄마, 동생등 한국어로 가족명칭을 주제로 적어놓고 각자 가족을 소개한다.

15. 점묘법



수업재료 : 흑백사진 점으로 복사본 준비, OHP필름지 또는 트레싱지, 싸인펜 및 매직
수업방법 및 효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인물이나 자신의 흑백사진을 점으로 나타나게 복사본 준비하여 복사본위에 비치는 필름지나 트레싱지를 올려놓고 싸인펜이나 매직으로 점을 찍으며 명암을 표현한다.

종이접기

강사 황 진자

종이 한 장을 접는 것만으로 새가 되고 꽃이 되고, 동물이 되고, 로켓이 되고...신기하고 즐거운 종이 접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용구도 필요 없이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나 손쉽게 접을 수 있고, 어린이나 어린이나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종이접기입니다. 평면의 종이를 되도록 자르지 않고 직선으로, 기하학적으로 접어서 입체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종이접기의 특색이고 묘미입니다.

종이접기는 접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 열중하게 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맛보게 되며, 접는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접어야 작품이 아름다워지므로 자기도 모르게 집중력, 정확성, 기하학적 관념, 색채감각, 조형감각 등이 발달되어 지능의 개발로 이어지며 창조성도 키우게 됩니다. 기계문명, 대중매체 문화에 둘러싸여 점점 메말라져만 가는 현대의 생활입니다만, 종이접기를 함으로써 할머니와 손자, 어머니와 아들딸, 친구와 친구 사이의 정다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창작완구로서,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훌륭한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접기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자에게는 손 끝 운동으로 의학적 치료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종이접기는 이제 전 세계의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 국에까지 보급되고 있으며, 종이접기의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어 학교 교재로도 사용되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각국에는 우수한 종이접기 작가들이 배출되어 그 나라 특색이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이접기 종주국이었으나 창작활동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나라도 종이접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종이제조와 지공예가 발달하였고, 종이접기와 종이문화생활을 해 왔던 나라이며, 우리 민족은 손 솜씨가 탁월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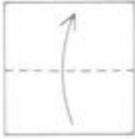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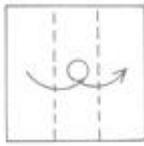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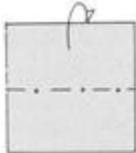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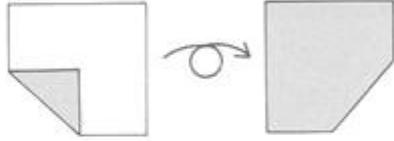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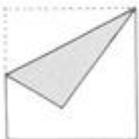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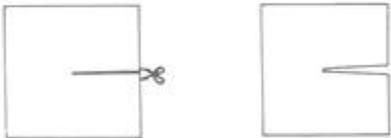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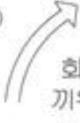
앞으로 이 곳 프랑스에 종이접기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이접기의 기초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종이접기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도중에 잘 할 수 없게 되어 포기하게 됩니다. 접는 순서와 방법이 틀리면 종이접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도 잘 알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접는 방법을 잘 전수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이접기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어려운 작품도 도형만 보고 접을 수 있게 되고, 창작도 할 수 있게 되며 접은 작품을 이용하여 벽면구성, 액자, 꽃바구니, 모빌, 입체조형물 만들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이접기가 교육의 일환으로, 또 건전한 생활 문화의 하나로 정착되어 창작예술세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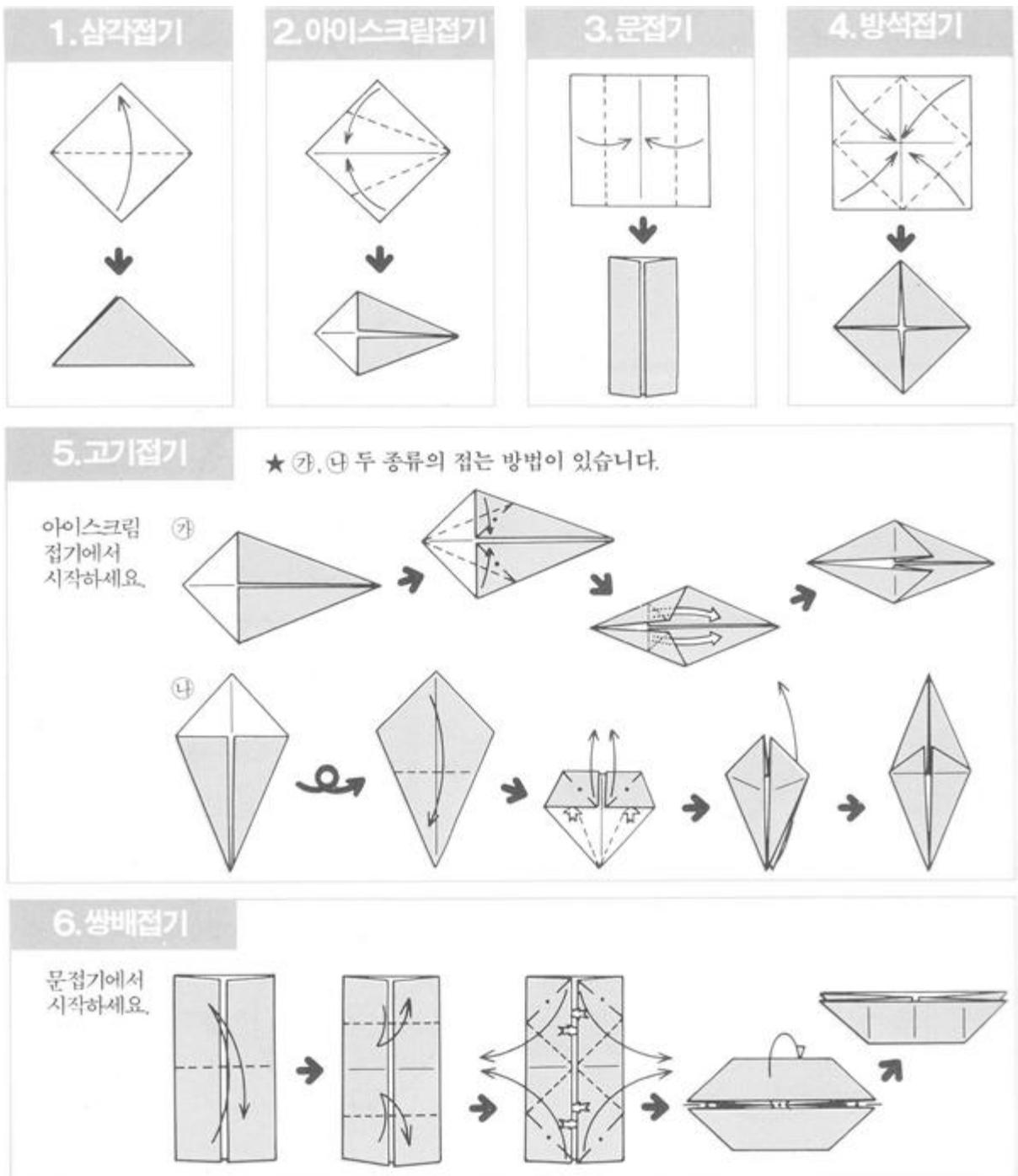
접기의 기본기호와 약속

다음 기호에 의하여 접는 방법이 표시되므로 기본기호와 약속을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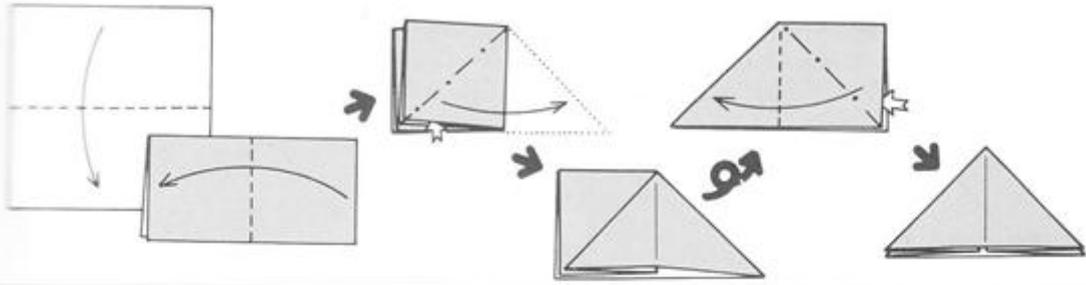
  <p>골짜기 모양접기 (VALLEY FOLD)</p>	  <p>접었다 편선 만들기 (FOLD AND UNFOLD TO CREASE)</p>
 <p>화살표 방향으로 접기 (FOLD IN FRONT)</p>	  <p>같은 방향으로 계속접기 (FOLD OVER AND OVER)</p>
 <p>산모양 접기 (MOUNTAIN FOLD)</p>  <p>반대방향으로 접기 (FOLD BEHIND)</p>	 <p>뒤집기(TURN MODEL OVER)</p>
 <p>가상선 (접기전의 선 또는 숨은선) (PREVIOUS POSITION)</p>	 <p>자르기(CUT)</p>
 <p>계단접기 (FOLD AND FOLD)</p> 	 <p>(TURN THE MODEL) 돌려 놓는다.</p>  <p>부풀린다. (BLOW UP)</p>  <p>화살표 방향으로 끼우거나 잡아낸다. (INSERT PULL OUT)</p>
 <p>안쪽으로 접기 (INSIDE REVERSE FOLD)</p>  <p>밖으로 뒤집어 접기 (OUTSIDE REVERSE FOLD)</p>	 <p>확대 (ENLARGE)</p>  <p>펼친다. (OPEN)</p>  <p>축소 (REDUCE)</p>  <p>밀어 넣는다. (SQUASH)</p>

종이접기의 기본형

종이접기의 기본형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사각형의 종이로 접는 기본형(1.삼각접기, 2.아이스크림접기, 3.문접기, 4.방석접기, 5.고기접기, 6.쌍배접기, 7.삼각주머니접기, 8.사각주머니접기, 9.학접기, 10.꽃접기)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아래에 소개된 10가지의 기본형은 종이접기를 쉽게 이해시키는 기초작업이므로 꼭 익혀두어야 하며, 나아가 기본형에서 변형 발전되는 창조적 작품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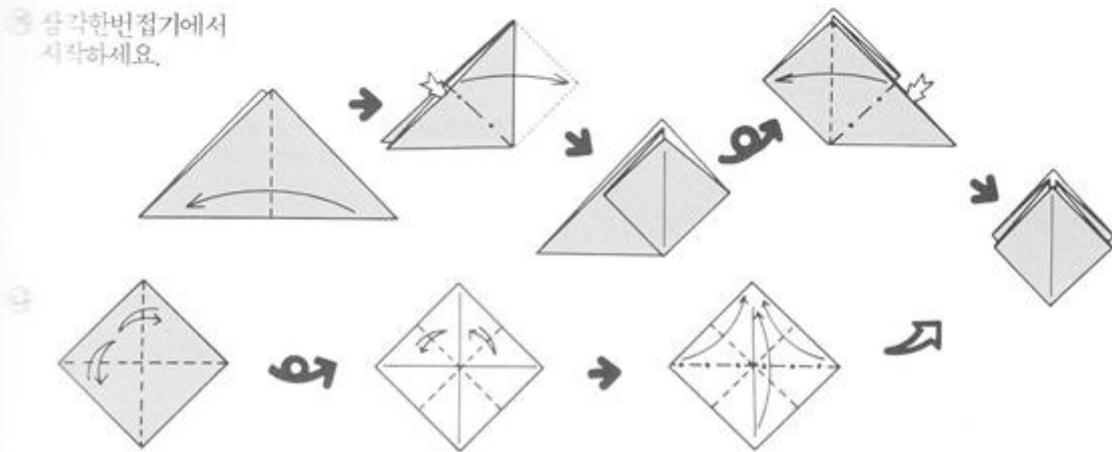
7. 삼각주머니접기



8. 사각주머니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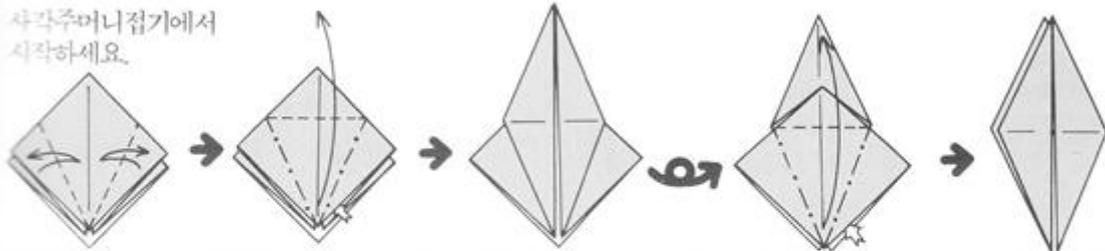
★ ㉓, ㉔ 두 종류의 접는 방법이 있습니다.

㉓ 삼각한번접기에서 시작하세요.



9. 화접기

사각주머니접기에서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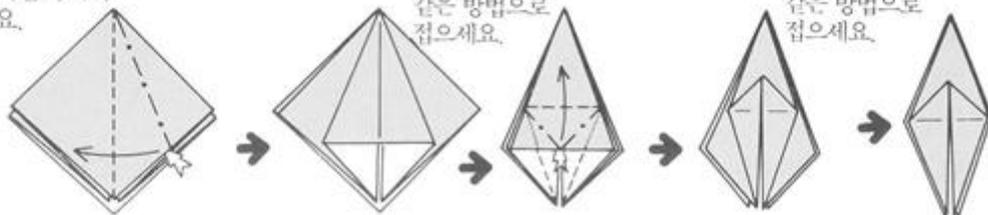


10. 꽃접기

사각주머니접기에서 시작하세요.

네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으세요.

네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으세요.



종이접기의 훌륭한 점에 대하여

대단한 도구도 필요치 않고 종이만 있으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또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곳에서나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며 즐길 수 있고 어른이나 아이나 서로 마주보고 앉아 함께 할 수 있는 종이접기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1. 종이접기의 교육적 가치

- (1) 어린이의 두뇌를 개발시킨다.
- (2) 창조성, 창작력, 미적정서를 키운다.
- (3) 집중력을 길러준다.
- (4) 손끝의 운동신경이 발달한다.
- (5) 구조분석과 관찰력, 상상력, 과학기술의 기초능력을 키운다.
- (6) 수학적, 기하학적 관념을 심어준다.
- (7) 정확한 것을 기뻐하게 된다.
- (8) 모든 완성품에는 순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 (9) 작업의 즐거움을 알고 작업에 전념하는 습관을 키우고 자신감이 생긴다.

2. 종이접기의 의학적 가치

- (1) 생각하며 손끝을 사용함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발달한다.
- (2) 창조적 의지와 능력을 자극해서 강화, 촉진시킨다.
- (3) 노인, 신체장애자, 정신질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

3. 종이접기의 생활 문화적 가치

- (1) 간단한 재료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2) 부모와 자녀, 손자들간의 대화에 적합하다.

(3)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생활, 환경미화와 정성이 담긴 선물로도 활용되어 민간외교 역할도 한다.

4. 종이접기의 예술적 가치

종이접기는 창작, 조립, 조직적 구성, 색채구성, 공간구성이 확대된 조형예술로서 창조적 활동이다.

5. 종이접기의 평화적 가치

- (1) 종이접기를 통한 가족간의 대화는 인간성 회복을 도모한다.
- (2) 병원, 재활원, 고아원, 노인정 등에 종이접기 봉사활동으로 기쁨과 사랑을 나눈다.
- (3) 종이접기는 마음의 고향, 따뜻한 심성을 길러주는 평화의 심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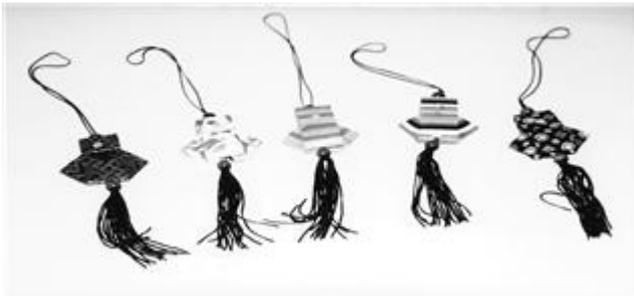
단계별 종이접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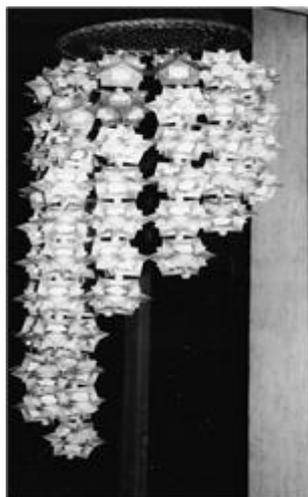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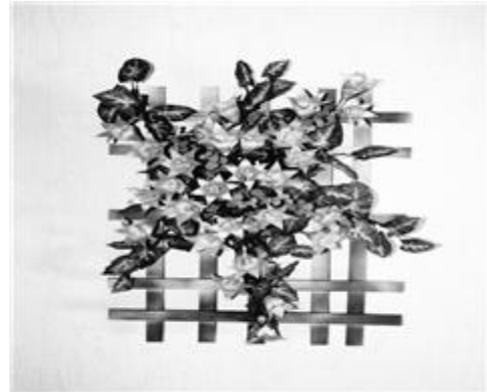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종이접기는 놀이 활동으로 시작하여 연령별 단계에 맞춘 학습 프로그램과 단계별 교육을 접목하여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 향상은 물론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집중력을 길러주며, 신체, 정서적 변화와 성장이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 관련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격과정을 통해 유치원, 학교, 문화센터, 재활원, 노인복지관, 관련 교육기관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취미 활동과 봉사 활동은 물론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지를 이용한 작품



(표)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지적 접근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

파리 7 대학교 김보경

1. 머리말

인지주의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지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은 언어를 습관의 형성으로 본 행동주의 이론에 반박하며 대두되었다. 인간 언어는 생득적인 규칙에 지배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의사소통적 교수법의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철학적인 이론으로는 제시했으나, 효과적으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학습이론으로서의 ‘유의적 학습이론’, 언어교수법으로서의 ‘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제 2 언어 입력 및 출력 자료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인 전략(strategy)으로서의 기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유의적 학습이론

David Ausubel 은 인간은 새롭게 접한 사건이나 항목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적 개념이나 명제에 연결시키는 유의적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벽에 있는 못에 옷을 거는 것처럼 인간의 인지 구조 내에 있는 못에 새로운 사건이나 항목을 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의미란 함축적인 반응이 아니라 “명백히 표현될 수 있고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 의식적인 경험이다”¹.

기계적(rote) 학습과 유의적(meaningful) 학습을 비교해 보면, Ausubel 이 주장하는 인지적 학습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기계적 학습은 기존의 인지 구조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거의 관련이 없는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다. 인지적 위계 구조와는 무관하게 전화번호나 우편 번호를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계적 학습의 예이다.

¹ Anderson&Ausubel(1965:8)에서 이러한 경험은 유의적 기호, 상징, 개념, 혹은 명제가 개인의 인지 구조 내에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어 통합될 때 생긴다고 했다.

반면에 유의적 학습은 새로운 지식을 인지 구조 내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 사항과 연결 짓는 과정이다. 인지 체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지식은 이 지식을 포괄하는 체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체계 속으로 포섭(subsumption)된다. 새로운 지식이 포섭된다는 것은 인지 구조 내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이 바로 유의성이다.

포섭이라는 유의적 학습을 통해 학습한 경우 기억의 보존은 더 잘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이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전에 살던 집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보면 보통 기억하기가 어렵다. 전화번호는 임의적이어서 현실 생활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의적 학습의 경우 “학습 과제와 상호 작용하는 인지 구조 내의 사고 체계가 이 과제와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는지”가 기억의 보존을 좌우한다. 물론 유의적으로 학습 한 것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의적 학습의 경우, 망각은 의도적이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는 망각 자체도 학습을 위한 포섭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포섭 과정의 말소 단계에서 “인지적 가지치기(cognitive pruning)” 절차가 일어난다. 나무를 가지치기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가지치기 역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보다 많은 지식이 인지 체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다.

Ausubel 의 학습 이론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교사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을 망각하는 대신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적인 활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2. 인지적 접근법

1960 년대 후반 인지심리학과 Chomsky 의 변형생성문법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등장한 인지적 접근법은 인간이 지닌 언어능력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기계적인 훈련만을 강조하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등장했다.

John B. Carrol(1965)에서 비롯된 이 인지적 접근법은 언어학습의 습관 형성의 과정으로 본 청각구두식 교수법과는 달리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칙의 내재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구체적인 언어 교수방법에서도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목표어의 형태와 문법에 대한 기계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보아 의미나 표현의 사용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에, 인지적 접근법에서는 언어의 문법규칙은 물론 의미까지도 고려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인지적 접근법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문법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규칙을 설명할 때,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는 귀납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인지능력을 중시하는 인지적 접근법에서는 연역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지적 접근법의 특징>

1. 목표는 청화의 기능에 관심이 없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체계를 의식적으로 습득하여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competence)을 갖게 한다.
2. 언어 학습은 습관 형성이 아니라 규칙의 습득이다.
3. 문법은 가르쳐야 하지만, 연역적 또는 귀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규칙이 연습 후에 언급될 수 있고, 또는 학습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내재적 정보로 남겨질 수 있다.
4. 정확한 발음은 비현실적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다. 오류는 불가피한 것이며,

학습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5. 읽기와 쓰기도 듣기, 말하기처럼 중요하다.

6. 교사는 목표어의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언어사용 능력을 갖추고, 목표어에 숙달되어야 한다.

이 인지적 접근법은 학습자가 지닌 능력의 계발이라는 창조적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이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인지 강화를 위한 어휘와 문법의 제시 방법

인지주의에서 나온 인지 문법²에서 전제하고 있는 언어 의미의 본질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Langacker, 1988b: 49-50).

(1) . 의미는 개념화(정신경험)으로 표현된다.

- . 자주 쓰이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서로 관련된 의미망(network)을 나타낸다.
- . 의미구조는 인지영역(cognitive domains)과 관련지어 특징지어진다.
- . 의미구조는 바탕(base)에 윤곽(profile)을 부여함으로써 그 값을 도출한다.
- . 의미구조는 관습적 영상(imagery)을 포함한다. 곧, 의미구조는 특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한다.

인지주의의 언어학에서 나온 개념화, 의미망, 관습적 영상의 개념을 한국어 교육에 도입하여 어휘와 문법 교수에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다.

3.1. 개념화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 의미의 주관적 성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념화(conceptualization)란 용어가 사용된다. 개념은 일반적인 심적 표상, 논리적 실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개념이 여러 개의 다른 대상들에 공통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비교적 일반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자’라는 개념은 모든 의자에 적용된다. 개념이란 이 의자, 저 의자의 개별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¹ 이기동(2000)에서는 언어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인지 과정의 언급 없이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문법 구조는 상징적인 것으로, 개념 내용을 구조화하고 이것을 관습적으로 상징한다고 했다. 인지문법에 대한 연구로는 Lakoff(1987), Lakoff and Johnson(1980)의 범주화와 은유에 대한 연구, Fauconnier(1985)의 ‘정신 공간’에 대한 연구, Haiman(1980, 1983)의 도상성과 백과사전식 의미론, Talmy(1975, 1977, 1978, 1983)의 공간연구와 이와 관련된 문제, 언어 구조의 비독립성에 관한 Moore and Carling(1982)의 제안, Fillmore(1982)의 틀의미론, ‘기능문법’ 학자들의 여러 연구가 있다.

‘의자’ -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도구



‘의자’라는 개념은 위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개념으로 인지될 수 있다. 외국어 화자에게 한국어 교육에서 단어와 문법을 제시하는 단계에서의 ‘개념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번 개념화된 단어나 문법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머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어떤 어휘를 접하게 되는 학습자는 처음 가진 의미의 개념이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단어와 문법 제시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개념이 머리 속에 남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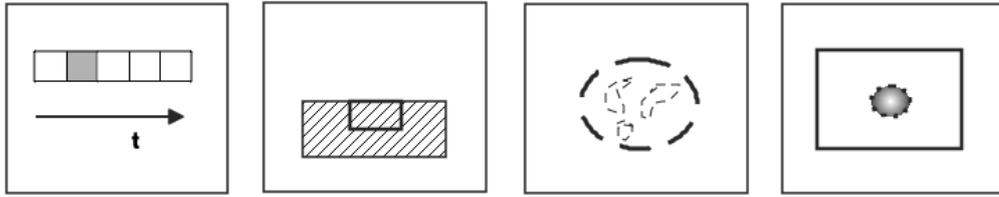
3.2. 의미망

인간의 머릿속에서 단어는 서로 여러 가지 관련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름대로의 어휘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어휘 항목이 다른 항목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휘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단어의 의미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어를 연결하는 목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어를 제시할 수 있다.

- (1) 대등어: 같은 층위로 묶을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양념류에는 ‘소금’, ‘후추’, ‘고추가루’, ‘겨자’ 등이 있는데 이를 묶어서 제시할 수 있다.
- (2) 반의어: 같은 층위에 있는 단어지만, 대등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을 따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를 묶어서 제시할 수 있다.
- (3) 상위어: 상위어로 제시하는 경우는 ‘색깔’에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4) 동의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묶어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과 ‘도서’ 및 ‘서적’을 묶어서 나타낼 수 있다.

3.3. 도식화

이기동(2000)에서는 인지언어학에서 다양한 도식을 통하여 어휘와 문법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다. 순간이나 기간은 시간 속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점, 선, 원은 2차원 공간 속의 부분을, 구, 원추, 원통은 3차원 공간 속의 부분을 나타낸다. 색채어 ‘빨강’은 색채 공간에서 한계가 지어진 국부를 나타낸다. 점, 줄무늬는 시야 속에서 제한된 영역에 대한 감각을 가리킨다. ‘뽀이’ 소리는 음조 영역을 차지하며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다. 섬광은 시각 영역을 차지한다. 이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화요일

움푹 들어간 곳

군도

중앙

이러한 도식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했을 때 학습자의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화요일의 개념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분으로서 제시할 수 있으며, 움푹 들어간 ‘웅덩이’의 개념을 위의 도식을 통해 공간 개념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군도는 여러 점들이 무리를 지어있는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의 개념 역시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서 가운데를 차지하는 것을 나타내어 제시할 수 있다.

4. 전략중심 지도법 (Strategies-based instruction: SBI)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 모두를 교실 학습에 적용하려는 교사나 연구가들의 노력은 전략 중심 지도법(McDonough 1999, Cohen 1998)으로 또는 학습자 전략 훈련으로 알려져 왔다. 교사는 무엇이 학습자를 성공적인 학습자로 만드는가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전략 사용을 위한 환경을 교실 환경에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SBI 의 가장 유용한 지침서 중의 하나는 Rebecca Oxford(1990a)의 교사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이다. Oxford 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성공적이었던 많은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기술했다.

기억 전략	1) 정신적 연결 고리 창조	① 집단화 ② 연계, 상세한 설명 ③ 문맥 안에 새로운 단어 배치
	2) 형상과 발음 적용	① 형상 사용 ② 의미망 만들기 ③ 핵심어 사용 ④ 기억 속에 발음 표상
	3) 효과적인 경로	① 조직적인 경로
	4) 행동 착수	① 신체적 반응 또는 감각 활용 ② 기계적 기술 활용
인지 전략	1) 연습	① 반복 ② 발음, 쓰기 체계를 통한 형태 중심의 연습 ③ 공식화된 상투적인 표현이나 문형을 인지하고 활용 ④ 재결합 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습
	2) 메시지 주고 받기	① 아이디어 빨리 얻기 ② 메시지 주고 받기 위한 자원 활용
	3) 분석과 추론	① 연역적 추론 ② 표현 분석 ③ 언어간 대조적 분석 ④ 번역 ⑤ 전이
	4) 언어 입력 및 출력 자료를 위한 조직화	① 노트 정리 ② 요약 ③ 요점 정리
보상 전략	1) 지적인 추측	① 언어학적 단서 활용 ② 다른 단서들 활용
	2)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한계 극복	① 모국어로 전환 ② 도움 얻기 ③ 마임이나 몸짓 사용 ④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의사소통 회피 ⑤ 화제 선택 ⑥ 메시지 조정 또는 근접 ⑦ 단어 생성 ⑧ 우회적 화법이나 유사어 사용

Oxford 의 전략 분류 체계-직접 전략: 기억, 인지, 보상 전략

제 2 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전략을 학습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2 가지 전략으로 구분한다. 학습전략은 언어 입력 자료에 관한 것으로 언어 입력 자료의 처리, 저장, 상기,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어떻게 흡수하는가의 문제이다. 의사소통 전략은 언어 출력 자료에 관련된 것으로 의미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표현하는가,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언어 입력에 관련된 학습전략에 포함되는 개념인 기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강승혜 1999)

4.1. 기억전략

'인지(cognition)'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지전략과 기억전략을 구분할 수도 있고, 기억전략을 인지전략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인지과정의 세부과정을 살펴볼 때, 언어적 정보나 지식이 투입되는 과정과 기억저장 속에 저장되는 과정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인지과정에 포함된 기억 활동 중 기억(혹은 암기)만을 위해 활용하는 학습전략을 기억전략으로 분류하였다.

① 유사. 반의. 상하관계 활용

예) 유사관계: 예약하다 - 예매하다

반의관계: 답다 - 춥다

상하관계: 동물 - 개, 고양이, 토끼 등

② 이미 배운 어휘와 형태. 의미 연관

예) * 형용사 '예쁘다'가 '예쁜'으로 변화하고, '좋다'가 '좋은'으로 변한다.

'예쁜', '좋은' 뒤에 명사가 온다.

(관형형)	동사	형용사
현재	가다: 가는 사람	예쁘다: 예쁜 사람
	먹다: 먹는 사람	
과거	가다: 간 사람	좋다: 좋은 사람
	먹다: 먹은 사람	
미래	가다: 갈 사람	
	먹다: 먹을 사람	

③ 조사와 함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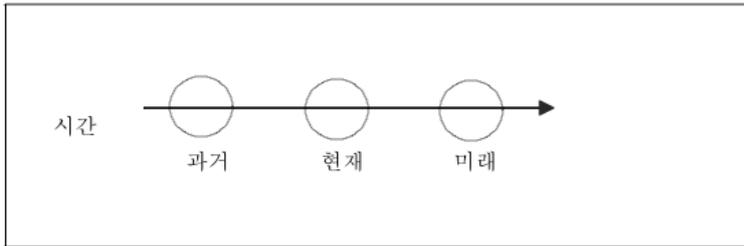
예) -이/가 좋아요. : 음악이 좋아요.

-을/를 좋아해요. : 음악을 좋아해요.

④ 시각적인 상(image)을 사용한다.

예) 과일 이름 (사과, 배, 바나나, 포도 등) - 플래시 카드나 사진 이용
색깔 이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등)

⑤ 표를 그리거나 인지도를 사용한다. (도식화)



예)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합니다.' (현재)

'공부를 할 거예요.' (미래)

⑥ 신체적 반응 혹은 감각을 사용한다.

예) '문을 열다', '문을 닫다'의 행동을 직접 함

'책을 펴세요', '책을 읽으세요', '쓰세요' 등의 명령문

'뜨겁다', '차갑다' 등의 온도를 직접 느끼게 함

4.2. 인지 전략

인지전략은 언어학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으로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일반적인 학습과 관련해서 '연습'과 같은 단순한 활동에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처리와 같은 활동과 관계 있는 전략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지전략은 좀 더 넓게는 기억전략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인지과정에 있어서 기억에 관련된 요소를 제외하고 정보를 인식, 이해, 내면화시키는 과정과 이 단계에 관련된 전략들을 인지전략으로 분류하였다(강승혜, 1996:116). 인지 전략은 네 가지 언어기능에 거의 관련되어 있는 전략들이 많다. 이것은 인지전략 대부분이 학습과정에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 소리체계나 쓰기 체계에 따라 연습하기

: 발음 음운현상에 관련된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 동사나 형용사 등의 어미활용을 하는 언어에서와 같이 불규칙 활용하는 현상에 관련된 문법사항의 학습에 활용

예) ㄱ + ㅎ = ㅋ

ㄷ + ㅎ = ㅌ

ㅂ + ㅎ = ㅍ

② 언어규칙이나 문법유형들을 사용하기

: 학습한 문법규칙과 유형들은 학습자 자신의 문장으로 생성하여 인지하도록 유도

예) 동사의 불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문법 유형 연습

(1) 'ㅅ'불규칙 : '-어'나 '어'로 시작되는 어미(-어서, 어야, 어도) 앞에서
 것+ 으니→지으니
 * 규칙 : 벗+ 으니→벗으니

(2) 'ㄷ'불규칙 : 결합조건은 과 같으며, 이는 <동사에만> 있다.
 묻(問)+ 어→물어, 듣다, 걷다, 일컫다, 긴다
 * 규칙 : 묻(埋葬)+ 으니→묻으니, 받(受)+ 으니→받으니, 뜯+ 으니→뜯으니, 돋다, 닫다, 민다, 쏘다, 얻다

(3) 'ㅂ'불규칙
 동사 : 뚫+ 아→도와, 굽다(炙), 깎다, 눅다, 줍다
 형용사 : 덩다, 춥다, 접미사 '-답다, -롭다, -업다'가 붙은 말
 * 규칙동사 : 뽑다, 씹다, 입다, 잡다, 접다
 규칙형용사 : 굽다(曲), 줍다

(4) 'ㅎ'불규칙 : 노랗+ (으)ㄴ→노란

(5) 'ㄹ'불규칙 : 부르+ 어→불러
 동사 : 가르다(分), 오르다, 나르다, 흐르다
 형용사 : 고르다(調), 다르다, 이르다(早), 배부르다
 * 규칙용언 : 따르다, 치르다, 다다르다, 들르다

③ 아는 정보와 재결합하기

: 학생들의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연관시킴

예) 알고 있는 형용사, 동사의 수준과 개수를 파악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 재결합시킨다.

④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연습하기

: 일부러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듯한 상황을 만듦.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보다 더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학습동기를 자극.

예) 하숙집 구하기 상황 / 은행에 가서 환전하기 /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신고하기 상황 연습

⑤ 요점 파악하기

: 학습자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읽기 자료나 듣기자료를 제시.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과정에 장애가 있다면 교사는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시킴.

⑧ 연역적으로 추론하기

: 문법규칙에 대한 지식들을 구체적인 예들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사고를 훈련.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침.

⑨ 표현을 분석하기

: 한국어 복합어, 한자 어휘, 어휘의 의미도 스스로 이해.

어휘나 표현의 분석뿐만 아니라 문장단위로, 단락단위로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

예) * 한자어 : '학(學)'이라는 단어가 '학교', '학생', '학용품'에 쓰이며, '학문(學文)'을 나타내며, '경제+학', '경영+학', '법+학', '의+학'이라는 단어가 '학문(學文)'의 하나라는 것 분석할 수 있다.

⑩ 모국어와 대조시켜 분석하기

: 문법요소, 음운현상, 표현방식, 문화 대조

⑪ 모국어로 번역하기

: 번역으로써 학습자의 이해정도를 판단.

예) 문법이나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음.

⑫ 전이시키기

: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관련된 지식체계가 목표어 학습과정에 그대로 적용.

언어체계가 유사한 일본어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언어적 지식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⑬ 노트하거나 메모하기

: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혹은 나중에 복습할 목적으로 필기하는 활동.

⑭ 중요한 것에 표시하기

: '밑줄 치기'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이미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법이나 표현 등에 표시하기.

⑮ 요약하기

: '요약하기' 전략은 듣기, 읽기 활동.

* 고급 단계 읽기 활동: 주어진 자료를 읽고 몇 개의 문장으로 짧게 줄이기. 다시 한 문장으로, 혹은 짧은 구로, 몇 개 단어로 나타내기

* 초급 단계: 대강의 내용을 한 단어로, 구로, 한 문장으로 혹은 몇 개의 문장으로 나타내기

5. 인지적 접근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 – Play Korean!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K-pop 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미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기학습자군과 한국어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잠재적 학습자들의 최신 요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을 보고, 듣고, 가사를 이해하고, 아이돌 스타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그들의 춤을 따라 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연재훈, 2012). 이러한 학습자 요구 변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과 배급은 앞으로 한류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장기화하고 고급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육 현장경험과 연구배경 및 기술지원 능력을 겸비한 박사급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K-pop 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 Play Korean!'을 개발하였다. 특히 유럽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에 있어서 K-pop 이나 K-drama 와 같은 최신 한류 문화 콘텐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유럽 내 18 세 이하의 (잠재적) 학습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여, K-pop 을 좋아하나 한글을 전혀 모르는 입문 단계의 해외 학습자들도 충분히 한국과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학습자 중심 동영상 교육 기반을 제공하였다.

'Play Korean!'은 한국 문화, 그 중에서도 K-pop 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을 SNS 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학습으로 연계하기 위해 만든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다.³ 외국어 교육을 물리적 공간에 따라 교실 수업과 교실 밖의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나누어 볼 때, 'Play Korean!'은 교실 밖 학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교실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Play Korean!' 수업은 다년간의 실제 교실 수업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도입-제시-연습-정리의 학습 단계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등급은 기존의 방식대로 설정하나, 잠재적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학습을 목표로 하는 영 (0) 등급을 학습자 등급에 포함시켜 입문반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들이 초급에 집중되어 학습대상에서 소외되곤 하였던 중급/고급 학습자들을 위해 중급반과 고급반 수업도 마련하였다.

5.1 입문반의 수업 구성 및 교실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한국어학습 경험이 없는 입문 학습자(novice learners)를 위한 한국어 수업은 어휘와 표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 단계의 수업은 특히 학습자가 한글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를 접하여 간단한 문법과 어휘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귀에 익숙하고 단순한 표현과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였고, 한국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어도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였다. 수업에 등장하는 모든 한국어 어휘와

³ '플레이 코리아!'은 2013 년에 내용면에서는 K-pop 을, 주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PlayKorean>), 보조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166498470173709/>)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10 분 내외의 비디오 수업을 총 22 편 제공하였다.

표현도 한글 자모를 사용하지 않고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로 기술하여, K-pop 을 좋아하는 팬층이 한글을 전혀 몰라도 쉽게 따라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입문반의 수업 내용

수업 이름	문법 및 어휘	중점 사항
I GOT A BOY (Lesso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수식어구 ◆ "멘붕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및 외모 관련 형용사를 사진과 함께 이미지로 제시 ◆ 콩글리시 수식어
WHAT'S YOUR NAME (Less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이름, 나이, 전화번호, 직업, 취미)에 관한 질문 ◆ "뭐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에서 나이를 묻는 상황과 존댓말 사용의 연관성 설명
GOTTA TALK TO U (Lesso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어요'의 두 가지 의미 ◆ "둘이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의미에 따른 실제 사용 맥락을 영상으로 제시
FRIDAY (Lesson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관련 어휘 ◆ '(-요일)에 시간이 있어요/없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관련 어휘를 기존에 배운 표현을 사용하여 확장하는 학습 구성
GOOD BYE (Less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인사 표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안한 감정과 감사 표현 및 기본적인 문안 인사 제시

특히 입문반 수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흥미로운 스토리라인 설정과 활용 및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담화 상황 제시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의 설정과 활용

한글을 모르는 입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흥미로운 텍스트 선정과 매력적인 활용'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입문 학습자들의 특성은 순전히 K-pop 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난이도 높은 학습요소나 무리한 학습목표를 최대한 배제하고, K-pop 을 좋아하는 세대가 쉽게 관심을 가질만한 '만남과 데이트'를 주제로 각 회마다 연결되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학습내용 간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 회 수업에서는 이상형인 남자와 여자를 묘사하도록 유도하여 명사수식어구를 가르치고, 2 회 수업에서는 그런 이상형을 만났을 때 무엇을 알고 싶은지 의문을 갖게 하여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직업, 취미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3 회 수업에서는 그 이상형과 친밀해진 후에 ‘할 말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4 회 수업에서는 이미 사귀게 된 상대를 언제 만나고 싶은지 상황을 설정하여 시간 관련 표현을 제시하고 이전의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확장된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 회 수업에서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상황을 통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답화 상황 제시

입문 한국어 수업의 표현 항목은 실제 답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보여 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이는 입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구조나 문법을 이해하기 전에 특정 어휘나 표현 중심으로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 어휘와 표현이 현실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화용론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목표어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 표현의 정확한 쓰임새와 사용 맥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아래 사진처럼 실제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그 사용 환경을 직접 보여주었다.



Play Korean! - WHAT'S YOUR NAME for novice learners (Lesson 2)

예를 들면, Lesson 2 에서 "뭐예요" 표현이 화자의 톤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지도하였는데, 동일한 화자가 왼쪽 영상 사진에서는 고음으로 "뭐예요"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현하였고, 오른쪽 영상 사진에서는 저음으로 "뭐예요"라고 말하며 실망감을 드러내어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2 초급반의 수업 구성 및 교실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초급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200 시간 내외로 학습한, 즉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기본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수업은 쉬운 한국어로 진행으로 진행하였으나 듣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고려하여 화면에 고정된 영어 자막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보조장치를 통해 초급 학습자들이 수업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어려운 어휘보다는 초급에 필요한 문형을 주로 다루었고, 특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주기 위해 유사한 문형, 어휘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알려 주고자 하였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급반의 수업 내용

수업 이름	문법 및 어휘	중점 사항
I WANNA LOVE (Lesso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싶다 ◆ -처럼 ◆ 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싶다 vs. -기 싫다 ◆ -기 싫다 vs. -고 싶지 않다 ◆ 절대 vs. 꼭
EVERYBODY (Less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ㄴ/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대명사 '-(으)ㄴ/는지' 축약형 ◆ '-(으)ㄴ/는지'의 반복 사용 ◆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용언
MIRACLES IN DECEMBER (Lesso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려고 ◆ -밖에 ◆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려고 vs. -아/어서 ◆ -밖에 vs. -만
SOMETHING (Lesson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 보인다 ◆ -아/어도 ◆ 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어 보인다 vs. -게 보인다(x) ◆ 이미 vs. 벌써
SINGING GOT BETTER (Less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 - 같다 ◆ 덕분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vs. 훨씬 ◆ 어찌나 -(으)ㄴ/는지 ◆ 덕분에이다 vs. 때문이다

초급반 수업 대상자들에게는 외부의 자극이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하였다.

뮤직 비디오 영상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학습자의 흥미 유발

학습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 매체를 만났을 때, 그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K-pop 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수업인 'Play Korean!'을 보는 학습자는 노래뿐만 아니라 가수 자체에도 관심이 있으므로 뮤직 비디오 내의 가수의 동영상과 관련 영상을 적극 활용하였다. 문형의 제시와 연습은 물론 대화 연습, 문법 설명의 배경 화면에도 꼭 가수의 사진 및 영상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동영상 수업을 보는 동안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 가수의 팬의 입장에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팬인 학습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팬들만이 알고 있을 만한 뮤직 비디오의 정보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Play Korean! - MIRACLES IN DECEMBER for beginners (Lesson 3)

과제 부여를 통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동영상을 통한 언어교육에서 부족한 점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교사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문형이나 어휘의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용이 그 뒤를 이어 주지 못한다면 완전히 습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영상 수업의 일방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수업에서는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수업의 주요 문형을 사용하는 문장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예문을 영상 안에서 제시하고, 학습자는 그 동영상에 댓글로 문장을 만들어 과제수행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문장의 오류도 교정해 줄 수 있었다.



Play Korean! - I WANNA LOVE for beginners (Lesson 1)

이러한 방법은 소규모 언어 학습이 아닌 대규모 언어 학습의 상황에서도 응용해 볼 수 있겠다. 대규모의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바로 바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나 이렇게 배운 문법을 이용하여 만든 문장을 댓글로 달게 하는 과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하게 학습자들의 학습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다.

5.3 중급반의 수업 구성 및 교실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중급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400 시간 이상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중급 단계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해당 단계의 문법과 어휘를 구어 및 문어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여 8 분 내외의 수업을 제공하였다. 각 수업은 학습 단계에 맞춰 도입-제시-연습-정리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수업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급반의 수업 내용

수업 이름	문법 및 어휘	중점 사항
I AM SORRY (Lesson 1)	- 뭐라고 - -(이)라고/-다고 - 뻘하다, 웃기다, - 짜증나다	- 상황극, 타매체(영화 클립 및 TV 개그 프로그램) 등 사용
CROOKED (Lesson 2)	- -았/었던 (vs. -던) - -(으)ㄴ/는 채 - 옷의 종류	- 유사 문법과의 비교 - 다양한 사진 자료 활용 - 한글 및 영어 자막 병행
MISSING YOU (Lesson 3)	- '그립다' (vs. 보고 싶다) - -아/어 버리다 (vs. -고 말다) - '-적' 형태 어휘 제시	- 학습자 고빈도 오류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유사 형태의 확장 어휘 제시
STILL YOU (Lesson 4)	- 구어 텍스트의 특성 - -나 봐, -(으)ㄴ/는가 봐 (vs. -(으)ㄴ/는 것 같아요)	- 구어와 문어의 차이 및 특성 정리 - 유사 문법과의 비교
LONELY (Lesson 5)	- -구나 (vs. -군요)	- 문법의 반말/존댓말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ㄴ/는다면 (vs. -(으)면) - 신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문법과의 비교
--	--	--

어휘/문법 사용 답화 자료 제시

중급 수업에서는 어휘/문법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뭐라고"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을 연출하여 1인 상황극으로 제시하였고,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놀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가 사용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어휘나 문법의 의미를 제시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환경과 방법에 대한 화용론적 정보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Play Korean! - I AM SORRY for intermediate learners (Lesson 1)

기학습된 유사 문법과의 의미와 사용 비교

'Play Korean!' 중급 2 수업의 목표 문법인 '-았/었던'의 의미와 사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함에 있어 기학습된 유사문법과의 사용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는 새로운 문법이나 어휘를 학습할 때 사전에 배운 유사한 문법들과 비교/대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학습한 문법과의 의미와 형태, 사용에 대한 차이를 알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본 수업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Play Koeran!' 중급 2 수업의 목표인 '-았/었던'의 의미와 사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기학습된 유사 문법인 과거형 '-(으)ㄴ'과 '-던'과의 비교를 통해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중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빈도 오류 요소를 고려하여 오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문법 제시단계에서부터 학습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Play Korean! - CROOKED for intermediate learners (Lesson 2)

위의 예시는 '-았/었던'과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인 단순 과거형인 '-(으)ㄴ'과 '-던'과의 비교인데,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법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중급 단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던'과 '-았/었던'의 의미 차이를 제시하기 위해 "먹었던"과 "먹던"이 사용된 상황극을 제공하였고, 추가적으로 "먹었던 케이크"와 "먹던 케이크"에 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문법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5.4 고급반의 수업 구성 및 교실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고급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600 시간 이상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고급 수업의 학습 목표는 사회 현상이나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급 수준의 문법과 어휘가 포함된 격식적이거나 비격식적인 구어/문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Play Korean!' 고급 한국어 수업은 모두 7 편이 제작되었는데, 5 편은 10 분 내외 길이의 정규 수업이고 2 편은 5 분 길이의 어휘 제시 및 연습용 수업이다. 수업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고급반의 수업 내용

수업 이름	문법 및 어휘	중점 사항
DREAM GIRL (Lesso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ㄴ 듯 (말 듯) ◆ XX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예보, 공익광고를 이용한 텍스트와 문화 요소 도입
CRAYON (Lesson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요미, 지못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영상과 신문 기사를 이용한 사회/문화 현상 소개
TWINKEL <i>et. al.</i> (Lesson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X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회 수업의 어휘 연습
GENTLEMAN (Less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ㄴ까, -(으)ㄴ랑가 ◆ X 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 방언과 표준어의 비교를 통한 한국어의 이해 증진 ◆ 칼럼, 한국 음식, '강남 스타일'과

		'강북 멋쟁이'로 현대 대중 문화 요소 도입
GROWL (Lesso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울음 소리, X 대다, 모음조화 ◆ 하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뉴스 비교, 책 제목, 텔레비전 광고를 이용하여 텍스트 차이를 연습 ◆ 이산가족 문제를 통해 한국의 정치 사회 문제를 소개
LOVE, AT FIRST (Lesson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고 하는 것, -이란 ◆ X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과 단풍 구경 등 한국의 가을 풍경 소개 ◆ 취업과 연애 등의 청년 문화 소개.
HAPPY ME (Less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정리 ◆ 동사 '들다'의 연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곡 다시 부르기의 대중 문화 트렌드 소개 ◆ 속담 학습

위의 표에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만한 것은 문어/구어 텍스트 요소와 어휘 제시 및 연습이다.⁴

텍스트: 문어 텍스트와 구어 텍스트

고급 한국어 수업 3 회에서는 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하라체를 문법 목표로 삼았다. 하라체는 선언이나 선서 등의 특정한 언표 내적 효력을 가진 발화를 제외한다면 보통 문어 텍스트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뉴스를 비교하였다.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이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골라서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 100명씩 25~30일 금강산서 이산 상봉
2박 3일씩 두 차례 나눠 상봉

남북은 8월 23일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금강산에서 이뤄진 이후 3년 만이다.

양측은 추석 연휴 이후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100명씩 하기로 했으며 상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다. 관례에 따르면 2박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3. 8. 23 경향신문

Play Korean! - GROWL for advanced learners (Lesson 3)

⁴ Seilstad (2012)는 맞춤 비디오 수업을 교실 수업의 전 단계로 (preteaching) 활용할 때의 학습 효과를 보고한 논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Play Korean!' 수업을 교실 수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전 혹은 수업 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디오 수업에서는 문어와 구어 텍스트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뉴스 자체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에 학습자료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휘와 내용 이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어휘: 형태와 의미론적 정보를 이용한 어휘 제시와 K-pop 접속곡을 이용한 어휘 연습

고급 한국어 수업의 어휘 항목은 단어 형성의 형태론적 정보와 어휘군의 의미론적 정보를 이용하여 제시되었다. 1 회 수업에서는 의성어/의태어와 '-하다'로 이루어진 형용사 중, 어근이 2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어근을 이루는 음절의 소리가 동일한 'XX 하다'류를 학습하였는데, 예를 들면 '꼼꼼하다, 당당하다, 생생하다' 등이다. 이 어휘들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영화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자막 효과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Play Korean! - DREAM GIRL for advanced learners (Lesson 1)

오른쪽의 사진은 모두 11 개의 노래를 'XX 하다'가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한 1.2 회 수업이다. 즐겨듣는 K-pop 에서 목표 단어를 찾는 활동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학습자도 참여하여 그 학습 효과가 클 것이 기대되었으나, 비디오에 너무 많은 K-pop 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에는 게시할 수 없게 되었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인지적 교수법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중시하는 유의미, 인지, 학습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어휘와 문법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인지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어휘와 문법 제시 방법으로 인지언어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화, 의미망, 도식화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기억, 인지 강화 전략으로서의 기억 전략과 인지 전략을 제시하여 이를 멀티미디어 교육에 적용한 Play Korean!의 수업 구성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는 어휘와 문법을 제시하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인간의 인지과정을 통해 이해를 쉽게 하고, 장기기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상의 교수법’이란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 목적, 상황, 학습자의 요인, 기능, 요구 등을 고려하여 각 기능, 문법, 주제에 맞는 교수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승혜(1999), 학습자 중심 교수전략의 모색을 위한 검토, 『이중언어학 16』, 이중언어학회.

박경자 외(1994), 『언어교수학』, 박영사.

연재훈. 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 텍스트, 장르 선정과 활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 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53-54.

이기동 편저(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이흥수 외(2004),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전병만 외(2003), 『외국어 접근 방법과 교수법』, CAMBRIDGE.

H. Douglas Brown, 권오량 외(2001), 『원리에 의한 교수』, Pearson Education Korea.

H. H. Stern, 심영택 외(1995), 『언어교수의 기본개념』, 도서출판 하우.

Marianne Celce-Mercia, 임병빈 외 (2004), 『교사를 위한 영어교육의 이론』, 경문사.

M. L. Johnson, 이기우(1992), 『마음속의 몸』, 한국문화사.